



포호하는 나상욱

재미교포 나상욱(28·타이틀리스트)이 2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서머린TPC(파71·7223야드)에서 열린 저스틴 팀버레이크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 4라운드 18번홀에서 우승이 확정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나상욱 PGA 210전 211기

아동병원 오픈 23언더, 닉 와트니 2타차 앞서  
데뷔 7년만에 우승... 상급 랭킹도 33위로 쏘를

재미교포 나상욱(28·타이틀리스트)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가을 시리즈' 첫 대회에서 데뷔 7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211번째 도전만의 우승이다. 나상욱은 2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서머린TPC(파71·7223야드)에서 열린 저스틴 팀버레이크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 4라운드에서 버디 8개를 끌어당기고 보기는 2개로 막아 6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 합계 23언더파 261타를 찍어낸 나상욱은 동반플레이어를 펼친 '장타자' 닉 와트니(미국·21언더파 263타)를 2타차로 따돌리고 끝에 그리던 우승을 차지하며 상급 75만

6000달러를 받았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PGA 투어에서 활동한 나상욱은 2005년 FBR오픈과 크라이슬러 클래식, 지난해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등 세 차례 대회에서 준우승에 그치며 우승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나상욱은 이번 우승으로 2013년까지 PGA 투어 출전권을 확보했고 이번 시즌 상급 랭킹도 33위로 뛰어올랐다. 와트니와 공동 선두로 마지막 라운드에 나선 나상욱은 초반부터 버디를 주고받으며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 전반이 끝난 뒤 나상욱은 2타차로 앞선 단독 선두가 됐지만 와트니의 반격이 만만치

않았다. 와트니는 13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 1타차로 쫓아왔고 나상욱은 14번홀(파3)에서 티샷을 범켜어 빠뜨리는 바람에 1타를 잃어버렸다. 다시 공동 선두가 된 나상욱은 15번홀(파4)에서 17번홀(파3)까지 3개홀 연속 버디를 낚아 승기를 잡았다. 특히 1타차로 앞선 17번홀에서는 홀에서 13m나 떨어진 지점에서 버디 퍼트를 성공해 사실상 우승을 확정지었다. 나상욱은 그동안 수차례 우승 기회를 놓쳤던 때문인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밤에도 2위로 대회를 마치는 악몽을 꿴다"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놓았다. 와트니는 나상욱의 정교한 퍼트 때문에 이번 시즌 처음으로 3승을 거둘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 위창수(39·테일러메이드)는 15언더파 269타를 쳐 공동 16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PGA 투어 우승 재미교포 나상욱 Kevin Na

출생: 1983. 9.15. 서울  
신장/체중: 181cm/75kg  
취미: 영화감상  
주요경력: 1999 미국 샌디에고시타 챔피언십 우승  
2002 APGA 볼보마스터스 우승  
홍보마스터스 우승  
2003~2007 코오롱엘리트 소속  
2003 타이틀리스트 서브 스폰서 계약  
2004 PGA투어 최연소선수  
서면필류로클래스 공동3위  
신한코리아골프챔피언십 공동2위  
2005 투산크라이슬러클래스 준우승  
2006 네이션아이드투어(2부 투어) 마크 크리스토퍼  
채리티클래스 우승  
2007 코브라골프코리아 소속  
2009 타이틀리스트 소속(현)  
PGA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공동3위  
2010 PGA투어 아놀드파머 인비테이셔널 공동2위  
2011 노던 트러스트 오픈 3위  
PGA투어 JT 슈라이너스 오픈에서 첫 우승

## “17번홀 버디 때 우승 예감”

나상욱 일문일담  
“이제 우승해 할거분”

“이전에도 많이 연습했던 퍼트였고 (17번홀 버디 퍼트 때)치는 순간 이 대회는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04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데뷔한 재미교포 나상욱(28·타이틀리스트)은 오랜 기다림 끝에 첫 우승을 차지한 뒤 흥분된 목소리를 숨기지 못했다. 다음은 나상욱과의 일문일담.  
-정말 오래 기다린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힘들지 않았던 대회가 없었지만 우승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였다. 모든 사람이 우승을 기대했는데 이제야 우승했고 정말 할거분하다.  
-17번홀에서 13m나 되는 버디 퍼트를 넣었다.  
▲16번홀까지 1타차로 앞서 있어서 남은 두 개 홀에서 과반 하자고 생각했다. 그런데 17번홀에서 동반플레이어 닉 와트니(미국)가 티샷을 너무 잘해서 나는 이 버디퍼트를 꼭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굉장히 먼 거리의 퍼트였는데.  
▲더블 브레이크가 있는 S자 라인이었다. 이전에도 많이 연습했던 라인이라 자신이 있었다. 퍼트를 하는 순간 생각대로 공이 굴러갔고 이 대회는 내 것이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3라운드 때 연습 스윙을 한 것을 두고 ‘헛스윙’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2년 전부터 생긴 내 버릇이고 PGA 투어 경기위원이거나 선수들은 모두 잘 알고 있다. 헛스윙의 판단 기준은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인데 내 스윙은 철의도가 없는 스윙이다. 세삼스럽게 논란이 된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올 시즌 들어 변화가 있었다면.  
▲전에는 백스윙 때 옆으로 누워서 골프채가 올라갔는데 지금은 좀 더 가파르게 올린다. 그러면서 비거리도 약 20야드 가량 늘었다. 아이언도 이전보다 한 클럽 짧게 잡는다.  
-성적이 굉장히 다혈질이라는 지적이 있다.  
▲PGA 투어 선수치고 다혈질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는가. 승부의 세계에서는 성격이 다혈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요즘은 화도 잘 안 내고 성질을 많이 죽였다. (웃음)  
-앞으로 대회 출전 계획은.  
▲이번 주 열리는 PGA 투어 가을 시리즈 프라이스닷컴 오픈에 한 번 더 출전한다.  
그리고 중국에서 열리는 이벤트 대회 레이크 말라렌 상하이 마스터스(10월 27~30일)에 나간다. 최경주 선배와 리 웨스트우드 등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합뉴스

## 우즈, 세계랭킹 50위 밑으로 추락

루크 도널드 1위·최경주 15위

추락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15년 만에 세계랭킹에서 50위 밑으로 떨어졌다. 우즈는 3일 발표된 세계골프랭킹에서 평균 점수 2.74점을 받아 지난주보다 한 계단 떨어진 51위에 이름을 올렸다. 우즈는 세계랭킹 61위였던 1996년 10월 13일 이후 778주 동안 50위권에 들었으나 지난 2년간 한 번도 대회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다. 지난 8월 PGA 챔피언십 대회에서 컷 탈락한 뒤 휴식을 보낸 우즈는 이번 주 열리는 PGA투어 가을시리즈인 프라이스닷컴오픈에서 재기를 노린다. 2004년 PGA 투어 데뷔 후 처음으로 저스

틴 팀버레이크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에서 우승한 재미교포 나상욱(28·타이틀리스트)은 평균 점수 2.43점을 받아 76위에 서 62위로 14계단 뛰어올랐다. 이 대회에 나가지 않은 최경주(41·SK텔레콤)는 지난주보다 한 계단 떨어진 15위(4.70점)에 자리했다.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는 22위(3.83점), 양용은(39·KB금융그룹)은 43위(3.06점)를 유지했다. 세계랭킹 1~3위는 루크 도널드(잉글랜드),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로 지난주와 변동이 없었다. /연합뉴스

## 김경태 PGA 진출 위해 ‘가을 시리즈’ 도전장

한국프로골프의 에이스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진출을 위해 ‘가을 시리즈’ 마지막 대회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번 시즌 일본과 미국, 한국을 돌며 바쁜 일정을 보낸 김경태는 20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리는 PGA 투어 ‘가을 시리즈’ 마지막 대회인 칠드런스 미러를 네트워크 호스피탈

클래스에 출전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다음 달까지 대회 출전 일정이 꽉 짜여진 김경태가 가을 시리즈에 출전하는 것은 필리파잉스쿨을 통하지 않고 PGA 투어 출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PGA 투어는 정회원이 아니라도 상급 랭킹 125위 안에 드는 상급을 쌓은 선수에게 다음해 정규투어 출전권을 준다. /연합뉴스

**Llumar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자외선 차단 끝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천연가죽시트**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는 가죽시트

최저가

▶승용 5인기준 38만원 → 28만원 부터 ▶RV 5인기준 40만원 → 30만원 부터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타이어 4짝 교체시 스노우체인 12만원 상당 무료증정(공짜)

- 알라이먼트 3~5만원 무상점검
- 평상 펌크 무상점검
- 타이어 앞 뒤 순환교체 평상 무료점검
- 브러쉬용역서액 무료증정

공짜

타이어 상담전화: 062-528-2258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 3M**

Meguiar's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 ▶ 소형 25만원 → 13만원
- ▶ 중형 30만원 → 18만원
- ▶ 대형 35만원 → 23만원
- ▶ RV 35만원 → 23만원
- ▶ 수입차 40만원 → 28만원

**한국카렌드 자동차용품 백화점**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렌드가 하는 일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안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밧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바둑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이자가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카엑세서리 일체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객정 끝

임동오거리 | 임동사거리 | 임동사거리 | 임동사거리